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6. 6. 24.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2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코러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30장 25~36절

다 같이

25.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8.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9.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으니 내 밭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31.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34.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35. 그 날에 그가 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말씀 나눔 주님 손에 맡긴 인생 역전 인 도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땀흘려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뢰했던 이들에게 기만당하는 역올한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처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가를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노동력만을 제공하며 성실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물이었고, 야곱을 정당한 가족이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마침내 14년의 의무 봉사 기간이 끝나고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문을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품삯 계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세 가지 대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비전의 시작 : 내 집을 세우라 하는 결단

본문 25, 26, 30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 요셉이 출생하자 외삼촌 라반에게 당당히 귀향을 선언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온 이후 여호와께 복을 받아 자신의 재산이 크게 번성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복의 통로인 야곱을 어떻게든 더 붙잡아 두고자 "네 품삯을 정하라"(28절)며 회유합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성실하게 양 떼를 쳤는지 강조하며,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서 '내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사유 재산을 모으겠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벧엘에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대가문'을 믿음으로 일으키겠다는 거룩한 비전의 선포입니다. 야곱은 세상의 안락함이나 라반의 그늘에 영원히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 결실을 보겠다는 영적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의 일시적인 보상이나 환경에 안주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니까"라는 야곱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나는 언제까지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며,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기업을 온전히 세우겠는가?"라는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성도는 세상의 고용주나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며 내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둘째, 자족과 지혜 : 세상의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의 제안

본문 31~34절 31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34**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품삯을 정하라는 라반의 제안에 야곱은 대단히 기묘하고도 불리해 보이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양은 대개 흰색이었고, 염소는 검은색이나 갈색이 절대다수였습니다.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변종은 전체의 10~20%도 되지 않는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야곱은 앞으로 태어날 가족 중 이 희귀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만 자기 몫으로 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밀져야 본전인,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이었습니다.

야곱의 제안이 지닌 이중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라반과의 철저한 소유권 분리를 위한 지혜였습니다. 털 색깔이 명확히 대조되므로 훗날 라반이 "이건 내 양이다"라고 억지를 부릴 수 없게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의'를 증명하겠다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의 잔꾀로 라반의 것을 훔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땀 흘린 성실함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과거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로 행하겠다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물질의 문제를 두고 경쟁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세상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편법과 꼼수를 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스스로 손해를 보는 듯한 청렴하고 투명한 기준을 세웠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 "나의 의가 나의 답변이 되리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하고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세상의 계산으로는 손해 볼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셋째, 세상의 탐욕 :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인간의 방해

본문 35~36절 35 그 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계약이 성립되자마자 라반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야곱의 양 떼에서 얼룩진 새끼가 태어날 확률을 아예 '0%'로 만들기 위해, 현재 양 떼에 섞여 있던 얼룩무늬와 점 있는 가축들을 모조리 골라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치는 흰 양 떼와 무려 '사흘 길 (약 40km)'이나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서로 교배하여 얼룩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유전적 가능성을 인간의 탐욕과 권모술수로 완전히 차단해 버린 처사였습니다. 야곱은 졸지에 순종 흰 양과 순종 검은 염소만 가지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노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모습은 “인간의 악랄한 기만과 탐욕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막아서려는 영적 방해”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계산으로 야곱의 손발을 묶었다고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였던 야곱은 이 부당한 조치에 항의할 법적 권리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등 뒤에 서 계시는,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결단할 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비웃으며 더 큰 장벽을 쌓고 우리를 사흘 길 너머의 절망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나의 노력과 정당한 권리가 처참히 짓밟히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반이 아무리 사흘 길을 떼어 놓고 유전적 가능성을 차단했음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그어 놓은 한계선과 바리케이드를 뚫고 역사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사망으로 우겨쌔도, 하나님이 열여 두신 하늘의 문은 결코 닫지 못함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 **눔** **다** **같이**

1.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세우기 원하시는 믿음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2. **나는 결과를 내 힘으로 붙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까?**
3. **사람이나 환경이 내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중 보 기 도 **베이지역과 미국을 위해** **다** **같이**

1. 미국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진리를 선포하도록
2. 이민자들과 소외된 이웃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3.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4. 베이 지역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5. 베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물질만능주의, 동성애가 떠나가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계산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눈앞의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며, 정직함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